



배정훈 | 장신대

1. 서론

이 연구는 다니엘서 7-12장에서 종말에 관한 계시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7장, 8장, 9장, 그리고 10-12장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다니엘서 7-12장의 계시에는 한 번에 통일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요소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7장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계시는 10-12장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드러난다. 또한 매 시대에 드러난 계시가 역사적인 요소인지 예언적인 요소인지는 다니엘서에 표기된 연대기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통시적인 방법보다는 공시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다. 최근의 성서연구는 통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¹⁾ 통시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경우²⁾ 공시적인 읽기와 배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연구와 공시적인 연구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다.³⁾ 공시적인 방법의 장점은 본문을 통일성 있는 책으로 읽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

* 이 논문은 장신대 연구비 지원 논문임을 밝힙니다.

- 1) 현대의 문헌연구에서, 공시적인 읽기는 우리에게 전달된 최종 형태로 본문의 구조를 정의하고 서술하는 목표를 가진 접근방법이고, 통시적인 방법은 본문의 편집 역사의 정의와 서술을 목표로 하는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Jacob Hoftijzer, "Holistic or Compositional Approach?: Linguistic Remarks to the Problem", in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Leiden: Brill, 1995), 98. 통시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방법의 구분은 소시르(F. de Saussure)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parole와 langue를 구분하였다. 사실상, 소시르는 parole보다는 langue를 우선으로 여겼다. 최근에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된다고 여겨졌다. James Barr, "The Synchronic, the Diachronic and the Historical: A Triangle Relationship", in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Leiden: Brill, 1995), 1-14. 벌린(A. Berlin)은 수평적인 역사의 축(통시적)에서 본문의 전역사와 후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평구조적인 축(공시적)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Sheffield: Almond Press, 1983), 111.
- 2) 통시적인 방법은 문헌의 역사를 탐구한다. 학자들은 다니엘의 편집의 역사를 연구해왔다. J. J. Collins, "Daniel, Book of," *ABD* 2, 31. 콜린스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문헌의 발전에 있어서 몇 단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형태는 마카비 시대의 마지막 편집자의 이념에 따라 편집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니엘서 2-6장은 다니엘서 7-12와는 독립적으로 떠돌다가 마카비 시대의 저자에 의하여 재편집되었다. A. Lacocque, *Daniel in His Tim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75. 다니엘서 1장은 디아스포라라는 원래 상황을 팔레스티노로 바꾸었다. L. M. Wills,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Minneapolis: Fortress, 1990), 80. 나아가서, 대다수 학자들은 마카비 저자가 다니엘서 7장, 8장, 10-12장을 편집하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과 1장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H. L. Ginsberg,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VT* 4/3(1954): 246-275. 다니엘서의 통시적 형성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최종 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16 집 (2007년 5월), 241-266.
- 3) 폴진(Robert Polzi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서의 통시적인 연구와 공시적인 연구는 역사적 문헌적인 방법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Robert Polzin, *Moses and the Deuteronomist, Part One, Deuteronomy, Joshua, Judges: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2, c.f. D. J. A. Clines and J. Ch. Exum, "The New Literary Criticism", in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JSOTS 143; Sheffield: JSOT Press, 1993), 11-25; E. Talstra, *Solomon's Prayer: 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1 Kings 8:14-61*(Kampen, 1993), 81-82. 공시적이고 역사적인 성서본문 읽기에 대한 논의는 더 포괄적이고 편견이 없어야 한다. 두 방법은 택일할 방법들이 아니고, 본문을 연구하는 두 가지 서로 관계되는 필요한 방법들이다. R. Rendtorff, "Directions in Pentateuchal Studies", *CR: BS* 5(1997), 58.

본문연구에서 사용된 공시적인 연구는 문헌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쓰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헌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통시적인 요소로 인한 본문의 불일치를 넘어서서 교회가 경전으로 읽었던 대로 통일성을 전제하며 읽는 것이다.⁴⁾ 특히 다니엘서를 언제 종말이 오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공시적으로 읽으면서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이 형성될 때는 역사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역사적인 요소란 시대의 위기 속에서 청중들이 들었을 때에 당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능한 요소들로서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며 종말을 기다리도록 돕는 요소를 말한다. 예언적인 요소란 시대의 상황과는 조화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종말이 임해서야 이해되는 요소들로서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하여 보여주는 계시의 요소를 뜻한다. 특히 다니엘서를 공시적으로 읽으면서 1-6장과 7-12장에서 같은 왕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경우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400년 후의 미래를 위하여 예언을 할 때 어떤 종말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필 뿐 아니라, 7-12장에 담긴 예언의 역사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를 통하여 종말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4)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관한 비평학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동의한다: 1)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거짓 이름(pseudepigraphy)이다. 주전 2세기에 쓰인 다니엘서의 합법성을 위하여 고대 지혜자인 다니엘의 이름을 취하였다. 2) 다니엘서 1-6장의 이야기들은 전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7-12장의 환상들은 마카비 시대에 무명의 저자에 의하여 쓰였다. 3) 1-6장의 이야기들은 7-12장의 환상들보다 오래되었지만, 다니엘서의 최종본은 마카비 위기 직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되었다. 4) 다니엘서는 서구의 정치적인 역사나 종말론적인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성에 관한 증거로 읽어야 한다. John J. Collins, "Current Issues in the Study of Daniel", J. J. Collins (ed),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Brill Academic Publisher, INC: Leiden, 2002), 2. 그러나 공시적인 연구에서는 본문의 역사성을 문제 삼지 않고 본문의 세계(the world of the text)를 전제한다. 앞에서 연구한 본문의 통시적인 결과와 공시적인 결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2.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연대기

다니엘서에서 연대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년” 등과 같이 왕의 연호를 소개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1-6장과 7-12장으로 나누인다. 1-6장은 다니엘이 역사적인 포로 시기 동안 구체적으로 살던 삶의 상황이 반영되는 반면에, 7-12장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400년 이후에 자신들의 상황을 포로라고 이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관한 예언이다.⁵⁾ 지금까지의 다니엘서 연구는 1-6장과 7-12장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서로 다른 장르로 여길 뿐 7-12장을 예언할 때 다니엘이 언제 이 예언을 하였는지의 연대기 표시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선 다니엘서를 연대기에 따라 1-6장과 7-12장을 구분하여 나누면 다음과 같다.

1-6장: 주전 6세기와 관련된 다니엘의 이야기

- 1장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단 1:1)
- 2장 느부갓네살 왕 다스린 지 2년(단 2:1)
- 3장 느부갓네살 왕(단 3:1)
- 4장 느부갓네살 왕(단 4:1)
- 5장 벨사살 왕(단 5:1)
- 6장 다리오 왕(단 6:1)

7-12장: 주전 2세기 공동체를 위한 다니엘의 예언

- 7장 벨사살 왕 원년(단 7:1)
- 8장 벨사살 왕 3년(단 8:1)
- 9장 다리오 원년(단 9:1)

5) 배정훈,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4집 (2009년 12월), 69-86.

10장 고레스 3년(단 10:1)

그런데 우리는 1-6장과 7-12장에서 같은 왕들이 언급됨을 알 수 있다. 즉, 벨사살 왕 시대에 5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죽음을 목격하였지만, 7장과 8장은 벨사살 왕의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리오 왕 시대에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9장도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다. 1-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7-12장에 언급되지 않지만, 2장에서 네 왕 이후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재해석을 통하여 7장과 연결된다.⁶⁾ 10-12장만은 1-6장의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이 예언만 있어 보이지만, 6장 28절에 나타나는 고레스를 통하여 연결된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왕의 시대별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 1장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단 1:1)
- 2장 느부갓네살 왕 2년(단 2:1)
- 3장 느부갓네살 왕(단 3:1)
- 4장 느부갓네살 왕(단 4:1)

벨사살 왕의 시대

- 7장 벨사살 왕 원년(단 7:1)
- 8장 벨사살 왕 3년(단 8:1)
- 5장 벨사살 왕(단 5:1)

다리오 왕의 시대

- 9장 다리오 왕 원년(단 9:1)
- 6장 다리오 왕(단 6:1)

6)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종말론의 해석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다니엘서 2장에서 종말의 해석”, 『교회와 신학』 77 (2013년 2월), 11-32.

이와 같이 왕의 연대로 묶어 보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벨사살 왕 시대에 7장과 8장의 종말에 관한 예언을 행하던 그 다니엘이 예언을 들은 후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의 멸망을 지켜보게 된다. 다리오 왕의 즉위 때에 예레미야의 포로 70년 예언을 들었던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왕의 연호를 중심으로 1-6장과 7-12장을 연결할 경우 우리는 다니엘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은 처음부터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형성되기까지 역사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들이 제 역할을 한다. 이 글은 위에서 연대기로 재편성된 표를 참조하면서 두 요소를 통하여 종말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3.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의 종말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종말론에 관한 자료들은 왕의 연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단 1:1); 느부갓네살 왕 다스린 지 2년(단 2:1); 느부갓네살 왕(단 3:1); 느부갓네살 왕(단 4:1).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종말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이때의 종말론은 7-12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긴박한 종말론은 아니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종말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게 만든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루어진 종말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말론이 시작된 이유는 이방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포로의 시작과 더불어 이방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시작된다. 이

포로는 하나님의 재가를 통하여 시작된다: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נָתַן נְתָנָה)”(단 1:2).⁷⁾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를 견뎌야 하는 운명을 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국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인정하신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청년들을 소집하여 왕궁에 불러들일 때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 들였다.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이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왕국의 잠정적인 권한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더할 나위없는 전성기로 이해한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단 2:37-38). 그들은 당대가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권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당대가 전성기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국은 끝이 있음에 고백한다: “그는...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단 2:21). 바벨론 왕국의 전성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한다(단 2:34, 35, 44).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왕국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제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그 왕국의 끝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7) 여기 쓰인 ‘나탄’이라는 단어는 욥기에서도 등장한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욥 1:12).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종말이 오기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왕국에 저항해야 한다. 이 저항은 제국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제국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일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 주지만, 제국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해야 한다. 이 저항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시작된다(단 1:8). 왕이 요구하는 대로 아름답고 윤택한 살을(단 1:15) 갖기 원하였지만, 신앙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택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결심에 부응하여 하나님은 채식과 물만으로도 다른 소년들과 구별되는 몸을 만들도록 허락하신다. 3장에서 이 저항은 절정에 이른다. 왕국의 영원함을 의도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모든 백성들이 왕국을 표현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었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하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제국에 순종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단 3:16-18).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를 불사하고 저항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건져내시고 보호하신다. 이러한 저항 가운데에서도 7-12장에 나타나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임박한 종말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넷째,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권세를 주신 왕국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정체성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상대하여 왕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단지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왕을 변화시킨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의 신인 여호와란 자기

8) 왕의 정체성의 변화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난 이방왕 (Gentile Monarch)의 고백”, 『신학과 문화』 17집 (2008년 6월), 47-62.

의 힘에 의하여 멸망한 나라의 신일뿐이다. 2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줌으로 다가온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예언을 듣고 행한 그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국을 영원하게 만들 야망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3장에서 자신의 왕국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에 저항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결심을 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한다. 그러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풀무불에 던져 버린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단 3:15). 그러나 세 친구가 무사한 것에 충격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종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3:28)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세 친구의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는 것을⁹⁾ 금하는 형식으로 조서를 내린다(단 3:29). 4장에서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증거로 곧 왕의 중요한 책임인 공의를 행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왕은 교만하여 이 경고를 무시했고(단 4:30),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 포로 및 회복을 통해 연단시키신다.¹⁰⁾

바벨론이 멸망될 때까지 2장에 나타나는 종말 신앙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되었다. 포로 초기에는 7-12장에서 보여주는 긴급한 종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예기치

9) NRSV에서 이 단어를 “신성모독을 말하다(utter blasphemy),” 로 번역한다. 샬롬(Shalom Paul)은 어근인 **בָּאָהַר**은 아람어에서 죄를 짓는 말(sinful speech)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Paul L.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72.

10)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다. Earnest C. Lucas,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113. John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6), 90.

못한 예언적인 요소는 2장에서 등장한다. 2장에서 주어진 계시는 네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에 관한 계시이다. 이 계시는 전성기를 자랑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된다. 본문의 문맥을 살필 때 이 계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함이 확실하다. 그러나 후에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이 계시는 본문 안에서 네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4. 벨사살 왕의 시대의 종말론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의 시대는 세 번 언급된다. 한번은 벨사살 왕의 멸망에 대하여(5장), 그리고 400년 후의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에서 두 번 등장한다(7장, 8장).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 7장(벨사살 원년), 8장(벨사살 3년)이 먼저이며 5장은 벨사살 왕이 멸망되는 날에 있었던 이야기이므로 마지막에 배치된다. 벨사살 왕 원년에 계시를 받기 전까지 포로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되고 나면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종말 계시는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예언적인 계시였다. 즉, 바벨론의 멸망 후가 아니라 네 왕국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것이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연대기를 고려한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타난 계시는 역사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핵심은 네 짐승으로 표현된 네 왕국(단 7:2-7), 마지막 왕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멸망(단 7:11),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단 7:13-14),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핍박(단 7:25), 핍박의 남은 기간으로서 한 때 두 때 반 때(단 7:25) 등이다. 네 왕 이후 즉, 바벨론의 멸망 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왕국 이후에 오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함께 오는 인자 사상은 2장의 “손대지 아니한 돌”(2:34)에서 “인자 같은 이”(7:13)로 발전

되었다. 인자 같은 이도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와 동일시되었다(7:14, 18). 또한 종말까지 남은 기간으로 제시된 “한 때, 두 때, 반 때” (단 7:25)는 처음으로 제시된 계시이다. 이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고난을 견디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핍박의 강도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게 한다.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가 낫선 것이기에 다니엘은 이로 인하여 번민하였다(7:28). 8장은 2년이 지난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계시로서, 7장과 유사한 계시이다. 8장에서 받은 계시는 7장에서 나타난 네 왕국 중에서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8:20), 그리고 숫염소는 그리스 왕국의 상징임이 판명되었다(8:21). 작은 뿔은 7장에서도 나타났지만, 작은 뿔의 신성모독은 새로운 계시이다. 또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까지 주어진 기간은 2300주야로 표현되었다(8:14). 8장에서도 다니엘은 그 계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가 그 환상으로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 8:27).

7장과 8장의 계시는 아직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적인 계시들이다. 두 계시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왕국 이후에 온다. 마지막 왕국의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성모독을 행하고, 회복하기 위해 남은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혹은 이전 삼백 주야이다.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었던 계시는 바벨론의 멸망, 인자의 등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러나 네 왕국과 남은 기간에 관한 계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 모두 놀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다(단 7:18; 8:27).

본문의 연대기만을 고려한다면 5장은 벨사살의 멸망을 서술하기 때문에 7장과 8장 이후의 사건을 묘사한다. 네 왕국에 관한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5장은 바벨론 멸망의 기대를 높여주는 본문이다. 5장에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된다. 느부

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폐위된 후에 7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 돌아왔지만,¹¹⁾ 벨사살 왕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받지 못한 왕이다.¹²⁾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는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메대의 나라가¹³⁾ 세워졌다.

결론적으로 벨사살 시대에 종말론을 위하여 주어진 예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의 멸망 후가 아니라 네 왕국 이후에 온다. 네 번째 왕국의 작은 뿔의 꺾임이 절정에 있을 때부터 남은 기한은 세 때 반 또는 2300 주야이다. 역사의 종말에 관한 계시가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역사의 종말 때 네 번째 왕국이 멸망되며 인자가 도래한다.

-
- 11) J.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234. “느부갓네살은 힘과 업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연단에 대하여 응답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지상의 권세는 단지 심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Lucas, 118. Goldingay, 97.
 - 12) D. N. Fewell, *Circle of Sovereignty* (Nashville, TN: Abingdon, 1991), 81-83. 학자들에 따르면 벨사살의 조치는 느부갓네살 왕과 대비된다. 5장의 벨사살은 3장의 느부갓네살 왕과 대비된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것은 2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하여 왕국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통일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벨사살의 잔치는 그의 신하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그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권력의 기초로서 그의 업적을 보여주는 반면에, 벨사살은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금지는 업적으로 교만을 유발하였지만, 벨사살은 불안한 기초를 가진 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마도 신하들을 위하여 기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13) 메대 왕국의 역사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바벨론은 메대에 의하여 멸망되었다(사 13:17; 21:2; 렘 50:9, 41; 51:11, 28). 메대 왕국은 앗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에게 위엄을 떨치고, 고레스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메대 왕국의 일부였다. 또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 고레스가 메대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정복을 메대의 정복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었다. 다리오는 처음으로 메대의 왕을 진압하였고, 이어서 바벨론을 정복하였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정복과 관련 있기에 주전 538년의 정복자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리오 방백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6:1) 다리오 1세의 제도 정비를 연상시킨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이는 메대 왕 다리오에 대한 서술은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1세의 유향 정책을 연상시킨다. 로울리는 메대 왕 다리우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정을 세워 찾다가 마침내 위와 같은 실마리에 기초한 저자의 창작 인물이라고 결론 내린다. H. H. Rowley, *Darius the Mede and the Four World Empire in the Book of Daniel* (Cardiff : University of Wales Press Board, 1935), 56-59.

5. 다리오 왕의 시대의 종말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를 보여주는 본문은 6장과 9장이다. 9장이 다리오의 원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6장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면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다.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포로의 끝을 바벨론의 멸망과만 연결했고 예레미야가 말한 포로 70년이라는 예언과는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메대의 왕 다리오가 즉위하고 나서야 비로소 포로의 끝을 바벨론의 멸망과 분리하고, 칠십년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종말에 대한 계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단 9:1-2).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직후에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계시를 받고 기도에 들어간다. 다리오에 관한 역사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3년을 포로의 마지막 해(69년째)로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다리오 왕 때는 아직 포로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중보기도를 드린다.¹⁴⁾

하나님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계시로 예기치 않게 예레미야의 70년을 제시하였을 때,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민들에게 70년은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이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기

14) 다니엘의 기도의 목표는 비밀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에 필요한 기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7), 226-228. Gerald H. Wilson, "The Prayer of Daniel 9: Reflection on Jeremiah 29", *JSTOT* 48 (1990), 91-99.

도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아니라 70이레(week-years)라는 것이다(단 9:24-27). 이 계시는 그동안 다니엘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계시이다.¹⁵⁾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담긴 내용은 처음들은 계시이다. 70이레의 전개는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한 이레, 반 이레의 순서이다. 7장과 8장의 계시와 유사한 부분은 반 이레(단 7:25; 단 9:27)이다. 반 이레는 7장에서 나타난 한 때 두 때, 반 때와 일치하는 기간이며, 8장에서 등장하는 2300 주야와는 유사한 기간이다.¹⁶⁾ 본문을 연대기에 따라 이해할 경우 종말까지의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7:25), 2300 주야(8:14), 그리고 반 이레(9:27)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개념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9장에 들어서 70이레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 포로민들은 다리오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다리오 치하의 상황은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다. 6장에서 다리오 왕은 4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왕의 정체성을 보유한다. 그리하여 왕은 다니엘을 옹호하지만, 왕국에는 여전히 다니엘에 대한 적대자들이 등장한다. 다니엘의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지만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자(6:4),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6:5). 다니엘의 적들의 음모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의 적들을 처벌한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다리오 왕은 이상적인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한다(단 6:26-27).¹⁷⁾ 다리오의 고백은 4장보다도 더 발전하고 있다.

15) 70년과 70이레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4집 (2009년 12월), 69-86.

16) 2300 주야를 1150일로 볼 경우, 3년 반 (1260일)보다 조금 모자란 기간이다.

17) 프린슬로우(G. T. M. Prinsloo)는 6장에서 26-28절이 중심임을 보여주었다. 시(poet)로 이루어진 이 조서의 내용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경배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G. T. M. Prinsloo,

고백의 근거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단 6:27)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고백을 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다.¹⁸⁾

다리오 왕의 시대는 표면적으로 포로 초기보다 안정된 시기였다. 왕은 겸손해졌고, 다니엘을 포함한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관대해졌다. 6장 마지막에 다니엘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단 6:28). 이 형통은 아무런 위협이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말한다. 돌아보면 이방 왕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디아스포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2장에서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3장에서 신앙의 순전성을 지키려는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으려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단 3:28). 느부갓네살 왕이 변한 이유는 천사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6장에서도 다니엘이 구원받은 후에 다리오 왕이 행하는 고백은(단 6:27) 사자 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다. 디아스포라들의 형통은 이와 같이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다.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단 3:18)과,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흠 없이 사는 삶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 시대에 종말론을 위하여 주어진 예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바벨론의 멸망 후가 아니라 70이레 후에 하나님의 나라

“Two Poems in a Sea of Prose: The Content and Context of Daniel 2:20-23 and 6:27-28”, *JSTOT* 59 (1993), 105-106.

18) 이 고백은 3장이나 4장보다도 더 발전된 고백의 형식을 담고 있다. Collins(1993), 271. 다리오의 고백은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넘어서고 4장과 유사한 표현이 많다.

가 온다. 종말의 반 이레 전에 핍박의 절정에 이를 것이다.

6. 고레스 왕의 시대의 종말론

고레스에 관하여 1-6장에서는 한 줄로 언급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단 6:28). 이 언급이 암시하는 것은 6장에서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과 같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것처럼 고레스의 왕 때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7장, 8장, 그리고 9장을 종합하면 계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었다. 네 왕국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포로의 기간은 70 이레인데 마지막 반 이레 남을 때 작은 뿔의 신성모독과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절정에 이른다. 그렇다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계시는 무엇인가? 10-12장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계시를 보여주면서 종말에 관한 계시를 완성한다. 우선 네 왕국인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의 역사와 그리스의 왕들의 역사를 자세히 묘사한다. 특히 10-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후 예언이라고 불리는 예언이다.¹⁹⁾ 이 예언은 반 이레 남은 시점에 69이레와 반 이레 동안 있었던 역사를 확인하고, 남은 반 이레 동안 일어날 예언을 선포하는 형식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인되는 특징은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과거의 왕들의 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왕들은 권세를 이용하여 조공을 받고 부를 축적하나(11:28, 43), 권세의 한계가 지난 후에는 멸망으로 치닫는다. 왕의 권세 남용이 극에 달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침범하고, 그 땅을 더럽힐 것이지만(11:16, 41), 그것은 바로 멸망이 임박했다는 징조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왕들의 역사는 마지막 왕의 미래

19) 사후 예언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서 10-12장 연구”, 『신학과 문화』 14집, 43-78.

를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를 왕들의 역사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다니엘에게 역사는 곧 예언이다.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로서 마지막 때로 (11:40) 여겨진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서지만, 멸망에 이르게 된다.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하며, 영화로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애굽 땅을 정복하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승리를 이룬다. 바로 그 승리 직후에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이 예언된다. 이전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처럼 안티오쿠스 4세는 연속되는 승리 후에 애굽을 떠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예언의 절정은 네 번째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의 과거를 확인하고 그의 남은 운명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의 역사적인 종말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이 도래할 것을 서술한다. 10-12장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계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네 왕국의 존재, 마지막 왕의 작은 뿔의 신성모독의 행동과 멸망, 그리고 작은 뿔의 죽음으로 초래되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계시를 마감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레스 왕 시대에 종말론을 위하여 주어진 요소들은 지금까지의 예언이 퍼즐을 맞춘 것처럼 연결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나타날 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은 70이레가 된다. 이전에 예언한 대로 종말까지 남은 기간은 반 이레이고 핍박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기간이다. 7장에서와 같이 10-12장에서 역사의 종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계시되었다. 전쟁, 환란, 영생, 지혜 있는 자의 역할에 대하여 계시되었다.

7. 결론: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

이 연구는 다니엘서 7-12장에 종말에 관한 계시가 7장, 8장, 9장, 10-12장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이유를 찾기 위하여 통시적인 방법보다는 공시적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필자가 시도한 것은 주전 2세기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최종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보다는, 최종 본문 안에 형성된 역사를 따라 가면서 종말에 관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묵시문학으로 여기는 다니엘서 7-12장에 담긴 종말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 예언을 행한 다니엘의 시대를 연대기적으로 함께 추적함으로써 행하였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 다니엘서 1-6장이나 다니엘의 예언이 담긴 7-12장에 있는 공통적인 종말 신앙은 다음과 같다. 종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원인인 포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재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포로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종말에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단 2:34)이나 “인자 같은 이”(단 7:13)를 통하여 온다.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 권세를 위임하시되,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1-6장에 나타난 종말 신앙은 7-12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 1-6장에는 7-12장처럼 임박한 종말은 없지만, 이방왕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나라 다음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말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된다. 그들이 바벨론의 전성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은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선언이었다. 다니엘서 1-6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왕을 보여준다. 하나는 하나님에 저항하다가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왕이다(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세상 나라에 대한 저항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협으로 이어진다(풀무불의 위협, 사자굴). 이 위협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계속적인 기적과 보호이다. 1-6장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왕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당한다.

7-12장은 1-6장과는 다른 형태의 종말론을 보여준다. 7-12장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는 면에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금신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도 담겨 있다. 7-12장에서 종말에 관한 계시는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다. 2장에서 최초의 종말 신앙은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되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인 벨사살 왕 때 아직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은 당대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언적 요소인 네 왕국과 한 때 두 때 반 때(또는 2300 주야)라는 계시 뿐 아니라 네 번째 왕국의 멸망과 인자의 도래라는 역사의 종말의 실체를 자세히 보여주신다(7장과 8장). 이것은 역사적인 포로 시대를 사는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전 2세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주전 6세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적인 요소였다. 다리오 왕(6장과 9장)에 이르러 다니엘은 그동안 받은 종말까지의 기한인 한 때 두 때 반 때가 70이레의 역사가운데 마지막 반 이레와 일치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주전 2세기를 위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10-12장에 이르러서이다. 이제 70이레는 네 왕국이 흥망 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이며, 여전히 핍박의 절정은 종말까지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남은 때 이방 왕의 신성모독과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과 사자 굴에서 신앙을 지켜 승리한 것처럼 주전 2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지켜

야 한다. 1-6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앙인들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이기기 위하여, 역사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왕국의 멸망과 함께 인자가 등장하며, 최후의 전쟁, 환난, 영생 등의 계시가 등장한다. 안티오쿠스 4세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는 역사상 왕들의 역사를 따라 정점에 올라 교만하다가 멸망할 왕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8. 참고문헌 (Bibliography)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7).

_____,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_____, “최종 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16 집 (2007년 5월), 241-266.

_____,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난 이방왕(Gentile Monarch)의 고백,” 「신학과 문화」 17집 (2008년 6월), 47-62.

_____,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 네 왕국 사상,” 「신학과 문화」 18집 (2009년 2월), 43-66.

_____,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4집 (2009년 12월), 69-86.

_____, “다니엘서 2장에서 종말의 해석,” 「교회와 신학」 77 (2013년 2월), 11-32.

Anderson, Robert A., *Signs and Wonders* (Grand Rapids, MI: Eerdmann, 1984).

- Collins, John, J., “The Court Tales in Daniel and the Development of Apocalyptic”, *JBL* 94 (1975), 218- 234.
- _____, “Daniel, Book of”, *ABD* 2 (1992).
- _____,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 Collins, J. J. (ed),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Brill Academic Publisher, INC: Leiden, 2002),
- Davies, Philip R., “Daniel Chapter Two”, *JTS* 27 (1976), 392-401.
- _____,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In *Sects and Scrolls: Essays on Qumran and Related Topics* (ed. P. R. Dav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6).
- Fewell, D. N., *Circle of Sovereignty* (Nashville, TN: Abingdon, 1991).
- Ginsberg, Harold Louis.,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 _____,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VT* 4/3 (1954), 246-275.
- Goldingay, John E.,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9).
- Hartman, L. & Di 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8).
- Heaton, E. W., *The Book of Daniel* (Torch Bible Commentary; London: SCM, 1956).
- Lacocque, Andre., *Daniel in His Tim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 _____, *The Book of Daniel* (trans. D. Pellauer; Atlanta: John Knox, 1979).

- Lucas, Earnest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 Polzin, Robert, *Moses and the Deuteronomis, Part One: Deuteronomy, Joshua, Judges: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I*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 Porteous, Norman W. *Daniel.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 Redditt, Paul L., *Daniel*(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 Rowley, H. H., “The Unity of the Book of Daniel”, In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London: Lutterworth, 1952).
- _____,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Some Comments on Professor Ginsberg’s Article”, *VT* 5/3 (1955), 272-276.
- _____, *Darius the Mede and the Four World Empire in the Book of Daniel* (Cardiff : University of Wales Press Board, 1935).
- Seow, C. L., *Dani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Wills, Lawrence M.,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Minneapolis: Fortress, 1990).

검색어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연대기

다니엘서의 종말론

칠십 이레

공시적 연구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revealed through the indication of Chronology

Chong Hun Pae (Ph. D. Assistant Professor)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My study starts from my question about why Dan 7, 8, 9, and 10-12 repeat the similar revelations about eschatology. My thesis in this paper is that the view about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is gradually formulated according to the period which Daniel lived in. The common themes in both Daniel 1-6 and Daniel 7-12 are as follows: the exile is allowed by God; the exile comes to its end with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end of the exile does not come through human power; God deposes and sets up kings until the exile comes to its end. In Dan 7-12, the revelation about eschatology is gradually revealed through the historical element and revelatory element. Antiochus IV in Dan 7-12 shows its archetype of both Nebuchadnezzar and Belshazzar in that the first threatens the life of the diaspora by forcing the worship of the

www.kci.go.kr

golden statue, and the latter commits a blasphemy. The first faith about eschatology is that the Babylonian empire perishes. While, however, the Babylonian empire still exists, Daniel receives new revelation about four kingdoms, a time, two times, half a time as a climax of persecution, the destruction of the fourth kingdom, and the coming of one like a human-being. It is not easy for Daniel to understand this new revelation. After Babylon destroyed, Daniel understands the end of exile does not come when Babylon destroys, but after seventy weeks. Now Daniel understands a time, two times, half a time is connected to the revelation of seventy weeks. Through new revelation in Dan 10-12, Daniel understands that four kingdoms and seventy weeks are connected each other. Moreover, Daniel receives the revelation about the event in the end of history.

Key words

Four Kingdoms

Chronology in Daniel

Eschatology in Daniel

Seven weeks,

Synchronic Study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7일